# 호남권 랜드마크 '더현대 광주' 20일 착공

### 시공사 중흥토건 · 현대건설 · 우미건설 컨소시엄 확정 2조원 규모 민간개발 프로젝트…2028년 개점 목표

지에 들어서는 광주의 첫 복합쇼핑몰 '더 이다.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 민간개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전망

현대 광주'가 오는 20일 착공식을 갖고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시공사는 중 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단순 유통시설 흥토건•현대건설•우미건설로 구성된 컨 을 넘어 쇼핑과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 소시엄으로 확정, 2조원 규모의 대규모 트를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허

2955m<sup>2</sup>, 지하 6층~지상 8층 규모로 지어 종 확정됐다. 져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보다 약 1.4 형 미디어월, 도심형 수경시설 등 체류형 광객이 머무는 복합문화 명소로 조성될

최근 협의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중흥토 발생할 것으로 광주시는 내다보고 있다.

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연면적 27만 건·현대건설·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최

더현대 광주는 2027년 말 공사 완공 후 고 있다. 통상 1년 반 이상 소요되는 인허 소비권역이 기존 충장로·상무지구 중 배 큰 초대형 복합몰이다. 옥상정원, 대 2028년 상반기 정식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 약 30개월 동안 일평 콘텐츠를 강화해 지역민은 물론 외지 관 교 최대 3000명의 건설 인력이 투입될 예 정이다. 개점 이후에는 5000명 이상의 직 ·간접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현대 광주 법인은 지난 7월 착공 보 인근 숙박·교통·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고를 마친 뒤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지역경제 부가가치가

시는 이번 사업을 '도시이용인구 3000 토되고 있다. 만 시대'를 실현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하

를 중심으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 아도 마련 중이다. 향후 지역 식자재와 패션 브랜드 입점, 청년창업존 조성, 공 말했다. 용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이 검

시는 더현대 광주가 완공되면 도심 가 절차를 11개월 만에 완료하고 행정 지 심에서 북구 일대로 확장될 것으로 보 원과 기반 정비를 통해 사업 속도전을 뒷 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전남을 넘어 아울러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광주도시 이용인구 3000만 시대를 열글 로벌쇼핑•문화허브로키워나가겠다"고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 취업자 2만6000명 증가…고용률 60%대 안착

### 전년비 2.2%p 상승 '62.0%'…서비스업 호조 전남은 취업자 수 3000명 감소…실업률 하락

광주지역 취업자는 지난달 2만6000명 (2.3%) 등이 증가했다. 이 증가한 반면 전남은 3000명이 줄어들 며 고용 흐름이 엇갈렸다.

발표한 10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 각각 증가했으며 자영업자는 1만1000명 면 광주 취업자 수는 79만명으로 전년 동 (-7.0%), 무급가족종사자는 1000명(-월 대비 2만6000명이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3만3000명, 여성이 35만7000명으로 각각 1만명, 1만6000명 비 2000명(-8.0%) 감소했다. 실업률은 늘었다.

2.2%p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로 1년 전보다 3000명 감소했다. 여성은 (4.1%)이 각각 증가했다 69.5%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7%p, 여 44만5000명으로 4000명 감소했으나, 남 자는 54.8%로 2.7%p 각각 올랐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4000명(-20.3%) 감소했지만, 사업·개인·공공서 하락했다. 비스업 2만2000명 (6.6%), 전기•운수•통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 1만 9000명 (14.5%), 상용근로자 1만7000명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12일 (3.8%), 일용근로자 3000명(9.6%)이 7.9%) 각각 줄었다.

실업자는 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

고용률은 66.2%로 1년 전 보다 0.3%p



각각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 2.3%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다. 만1000명(31.2%), 사업·개인·공공서비 종사자는 6000명(-6.7%) 각각 줄었다. 고용률은 62.0%로 전년 동월 대비 반면 전남취업자수는 100만7000명으 스업 1만2000명(3.5%), 광공업 4000명

반면농림어업2만7000명(-12.6%),도 2.3%로 1년 전 보다 0.2%p 하락했다. 성은 56만2000명으로 1000명 증가했다. 소매·숙박·음식점업 7000명 (-3.6%), 건 설업 6000명 (-7.3%) 이 각각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0%로 전년 동 명(4.4%), 상용근로자는 7000명 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금융 6000명 (7.2%), 건설업 2000명 월 대비 0.4%p, 여자는 59.3%로 0.2%p (1.7%) 증가했고, 일용근로자는 5000명

(-14.3%)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6000명 (-2.2%), 무급가족 실업자는 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 비 2000명(-8.5%) 감소했다. 실업률은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표본조사구 약 3만6000가구 중 광주지역 1600가구, 전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는 8000 남지역 1800기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한은 총재 발언에 국고채 10년 장중 3.3% '방향 전환' 발언 트리거…전 구간 10bp 가까이 상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매파적(통화 장은 통화 완화 사이클 유지라면서도 "금 긴축 선호) ' 발언에 가뜩이나 투자심리가 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9.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연 3.282%로 8.1bp 상승했다.

20년물은 연 3.275%로 7.0bp 올랐다. 30 을 매파적으로 받아들였다. 년물과 50년물은 각각 7.4bp, 7.1bp 상승 해 연 3.200%, 연 3.049%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 급등은 이 총재의 발언이 '트리거'(계기)가 됐다. 이 총재는 이날 전날 대비 10.8bp 급등해 지난해 7월 이 핀테크 행사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은의 공식 입 했다.

위축됐던 시장이 자극받으며 12일 국고채 여부까지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데이터 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 한 전 구간의 금리가 일제히 연중 최고치 지는 1.6%이지만 "우리는 2주 후 새로운 전망을 발표하는데 (전망치의) 상향조정

시장은 한은이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 2.923%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비롯해 오는 27 일 수정 경제전망을 토대로 통화 기조를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9.7bp, 8.1bp 상 결정한다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승해 연 3.088%, 연 2.837%에 마감했다. 희박해질 것으로 인식해 이 총재의 발언

> 특히 발언 중 '방향 전환'이라는 표현이 시장 참여자들을 자극했다.

실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후 처음으로 연 3.300%까지 오르기도 연합뉴스

####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 북구 무등산 평촌마을에서 광주농협, 서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기업-농촌이음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농협 광주본부·광주농협 등 '기업-농촌이음 운동' 협약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 북구 무등 산 평촌마을에서 광주농협, 서구시설관리 공단과 함께 '기업-농촌이음 운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이들 기관은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도농 교류 활성화 △지역 농촌지원과 연 스)'를 발족하고, 책임경영과 청렴농협을 계한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 촌관광 확대를 통한 관계 인구 증대 △사 발표했다. 회공헌활동 연계 일손 돕기 및 재해 복구 등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감 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을 지원하며 첫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상생 협력의 실천에 나섰다.

# 농협, 고강도 혁신 착수…'국민 신뢰 회복' 선언

'범농협 혁신TF' 발족…책임경영·청렴농협 추진 3대 전략 마련 대표·임원 등 절반 교체···'생산적·포용금융' 5년간 108조 투입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협력 체계를 강 로 훼손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 이를 통해 농협은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강도 개혁에 착수했다.

농협은 12일 '범농협 혁신TF (태스크포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을 담은 개혁안을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된 범농협 임원 에 나선다. 또한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 인적 쇄신 조치의 후속으로, 농협 조직과 을 높이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이들 기관은 협약식 이후 평촌마을 단 임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을

개혁안은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지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농업인 부채 위해서는 사건 • 사고 발생 농축협에 대해 모을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 당감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와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과 책임경영 강화 를 위해 농협은 대표와 임원, 집행 간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 인적 쇄신 제한하며, 불공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농심천심운동'을 전개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역 농축협의 부정부패 사고 근절을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엄격한 비 용 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 을 마련한다. 아울러 부정선거를 방지하 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도 즉시 운영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추 진하는 농축협에는 중앙회의 예산과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 되기 위한 공익적 역할도 강화된다. 농업인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신용 회복을 돕고, 혁 신 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생산적・포용 금융'에 향후 5년간 108조원을 투입한다. 또한 농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3조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과 임직원이 힘을

## 바이오·금융주 강세…코스피 1%대 올라 반도체 대형주 흔들…코스닥 5거래일 만에 900선 회복

코스피가 바이오 금융주의 강세 속에 1%대 상승률을 보이며 4150선에서 마감 헬스케어 업종 훈풍이 유입되고 정부 정책 했다. 코스닥은 900선을 회복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4150.39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8.95p(0.22%) 내린 4097.44로 출발해 반짝 반등 후 재차 하 차(2.42%), KB금융(3.06%), 두산에너 락하며 4088.86까지 밀렸으나, 강세로 돌 빌리티(0.2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서 오름폭을 키웠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셧다운(일시 업무 대부분 상승 마감했다. 정지) 해제 기대감에도 미 기술주 약세에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하며 방향성을 탐색한 뒤 바이오・금융 업종의 호조세를 재료 삼아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가 흔들렸으나 미국 기대감이 확산하며 상승 압력을 받았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0.39% 떨 이날 전장 대비 44.00p(1.07%) 오른 어진 10만3100원, SK하이닉스는 0.32% 내린 61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53%), 현대 (1.27%) 등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2.24p (2.52%) 오른 906.51로 거래를 마치면서 5거래일 만에 900선을 회복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엔화 약세·외국인 매도에 환율 또 상승 1470원 터치…2.4원 오른 1465.7원 주간 거래 마감

원·달러 환율은 12일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한 단계 더 상승하며 장중 1470 화 약세와 연동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원을 터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154.784엔을 찍기도 했다.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 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2.4원 오 무 일시 중지) 종료 국면에서 미국 경제 른 1465.7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부진한 미국 고용 지표의 영향 으로 2.3원 내린 1461.0원에서 시작해 1459.2원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오전 내 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내 강한 상승세를 탔다.

정오무렵에는 잠시 1470.0원을 기록하 타냈다. 기도 했다. 지난 4월 9일 장중 고가 수준이었다.

이날 환율 상승은 엔・달러 상승, 즉 엔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2시께

엔화 약세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나타난 달러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 전 거래일보다 0.07% 내린 99.545를 나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약 (1487.6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428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점도 환율 상 승에 영향을 미쳤다.